

무섭게 번지는 코로나바이러스...하루 확진자 전국 700명 육박

수도권 500명 이상...병상 부족 전남 10일째 한 자릿수 '안정세'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에서 무섭게 번지고 있다.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전국에 걸쳐 7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명 이상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될 정도로 수도권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686명 늘어 누적 3만943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94명) 하루 잠시 6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다시 600명대 후반까지 폭증했다. 686명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2월 29일, 909명) 이후 284일 만에 최고 기록이자 3월 2일과 같은 수치로 역대 2번째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662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남(566명)보다 무려 96명이 불어나며 3월 2일(684명) 이후 가장 많았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3일 이후 일주일(516명→600명→559명→599명→580명→566명→662명) 연속 500~6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 해마다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새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 선

까지 넘으며 연일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확진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환자는 524명(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을 기록해 코로나 19 사태 후 처음으로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8월 27일(441명 중 수도권 313명)보다도 200명 이상 많은 것이다.

최근 1주일(12.3~9)간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총 4080명에 달해 하루 평균 582.9명꼴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가 440.3명을 기록해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에서는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전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열흘째 일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8일까지 10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34명으로 일 평균 3.4명에 그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0명으로 코로나 19 국내 유입 이후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단 456명에 그친다.

병상 확보 상황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병상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체 517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가운데 273개 병상이 남아 있다. 잔여 병상에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에 설치된 위중 환자 병상 16개도 포함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재정 부담돼도 백신물량 추가 확보"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내년 2~3월 접종 시작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

인다"며 "정부는 4400만명 분의 백신 물량을 확인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돼 물량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외국에서 많은 접종 사례들이 축적될 것이므로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게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사용하리라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확진자 접촉 안해도 증상 없어도 코로나 무료 검사

'거리두기' 2단계 이상때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새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4판)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

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했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또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공공항 해결 후 민간공항 이전

▶1면에서 계속

이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 일정에 대해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공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결정할 뒤 4자 협의체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돼 공 공항 이전 협의가 이뤄지면 내년도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토부·국방부 계획대로 공·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등 최적의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공 공항 이전지역과 지자체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4자 협의체는 물론 국무총리실에 '광주 공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설치를 건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2018년 8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기로 협약했으나, 광주 공 공항 이전 문제가 표류하고 광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민간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

면서 보류됐다.

이 시장의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격양된 분위기다.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한 2018년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을 광주시가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공항 이전 문제와 군공항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렵사리 가동된 국토부, 국방부 등과의 4자 회의 역시 순항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 발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남이) 뒤통수를 맞았다. 집행부가 편성한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의했다. 전남도에서도 10일 김경록 전남지사가 별도의 입장문을 내겠다고 예고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렴도

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전남도도 올해 4등급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580곳을 상대로 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기관의 행정서비스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전문가·업무 관계자(내부청렴도)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와 같이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4등급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와 부산뿐이다. 광주시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중간급인

3등급을 받았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렴·혁신·소통을 시정 3대 가치로 제시하고 힘써 노력해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던 전남도는 올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역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았으나, 지난해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했다가 1년 만에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결과를 교훈 삼아서 청렴도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내년 평가에서 재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올해도 5등급...전국 최하위

전남도, 2등급 → 4등급 하위권 추락

광주·전남 기초지자체 중 시 단위 평가에서 전남 목포시 2등급, 나주시 3등급, 여수·광양시 4등급, 순천시 5등급 등을 받았다. 군 단위 지자체 중 2등급 평가는 전남 보성·진도·해남·구례·담양군이, 3등급은 곡성·영광·장성·화순군이, 4등급은 강진·무안·영광·완도·장흥·함평군이 받았으며, 5등급으로 고홍·신안군이 최하위였다. 구단위는 광주 동구·북구가 2등급을, 광산·남·서구는 4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모두 3등급을, 전남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는 2등급·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박진표 기자 lucky@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담 4220㎡(1,276평)
매 ㎡ 65만5천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기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금매
- (2) 화순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금매
- (3) 담양읍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 ㎡ 5천원 금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전용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유희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무안군 공고 제2020-27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임야-시중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광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무안 군 수

1.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상황실 오피스 1)
2. 사업현황: 가. 사업 명: 임야-시중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나. 위 치: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북동리 ~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다. 사업기간: 2018년 ~ 2023년 라. 보상내역

구분	소재지	지 번
토 지	무안군 일로읍 북동리	일로읍 북동리 2096-1번지 등 56필지
3. 열람장소: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 061-450-5663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0. 12. 10. ~ 12. 24.(14일간)
5. 보상시기: 2021년 2월 이후 예산편성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 (협의방법은 추후 개발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출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면적	소유자	서명	전화번호	평가일자	
소재지	지번	면적(㎡)	주소	성명	(법인)	(지역 및 휴대)

* 소유자 확인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주소 불명 등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척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제결 → 제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제결 또는 행정소송 7. 열람 편입 토지 등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편입 토지 지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건설교통과 건설지원팀 ☎(061-450-5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해화장품 회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미엘 퓨어먼트, 미엘클레시, 앙주르45몰티슈
나. 제조번호: 미엘퓨어먼트(20.10.08.299.G1) 미엘클레시(20.10.06.599.G1) 앙주르45몰티슈(20.10.06.196.G1) 앙주르실기몰티슈(20.10.09.130.G1)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1년
라. 회수 사유: 상기 제품(제조번호) 일부에서 미생물균주 한도 초과
마. 회수 방법: 방문택배
바. 회수 영업자: (주)지크린텍
사. 영업자 주소: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02
아. 연락처: 061-373-5118
자. 그 밖의 사항: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안내

12월15일(화)
▲광주 가고파트레킹 12월15일(화) 변산 마실길 숲삼지절명소(송년 점 해산 및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공고 계재일로부터 1개월이내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청어림엔씨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68, 3층(농성동) 청산인 강동영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0년 11월 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11월 9일 해산통고를 완료하였으나,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공고 계재일로부터 1개월이내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청어림엔씨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68, 3층(농성동) 청산인 강동영

심제공), 진월동식자재 마트앞 07:20, 월드킴복 문 빼들건너편 07:30, 한 국병원앞 07:40, 교원공제 앞 07:50, 문에회관후문 시내버스터미널 08:00 * 다음 카페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12월19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19일(토) 부안 변산 마실길 4~8코스(송년 점심제공),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 마트 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에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앞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光州日報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